

# 웨스트브룩, NBA 42번째 트리플더블 달성

## 55년 만에 대기록... 1962년 로버트슨 41회 뛰어 넘어

55년 만에 미국 프로농구(NBA) 시즌 평균 트리플더블을 달성한 오를라호마시티 센터의 러셀 웨스트브룩(29·191cm)이 농구 역사에 길이 남을 또 하나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웨스트브룩은 10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펍시 센터에서 열린 2016~2017시즌 NBA 정규리그 덴버 너게츠와 원정 경기에서 50점 16리바운드 10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이로써 웨스트브룩은 올 시즌 42번째 트리플더블을 기록하며, 1961~1962시즌 오스카 로버트슨이 세운 한 시즌 최다 트리플더블 기록(41회)을 뛰어 넘어 최다 기록을 달성했다.

지난 5일 밀워키 벅스를 상대로 27분 만에 트리플더블을 쓰며 로버트슨의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웨스트브룩은 이후 펍시스 그리즐리스와 피닉스를 상대로 아쉽게 트리플더블 달성에 실패했다.

웨스트브룩은 팀이 정규시즌 3경기 만에 남겨둔 가운데 시즌 평균 트리플더블을 확장하며 1961~1962시즌 로버트슨(30.8점 12.5리바운드 11.4어시스트)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제 42번째 트리플더블을 언제 기록하느냐에 대해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전반에 만 23점 12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대기록 달성에 어시스트 4개 만을 남겨뒀다.

후반에도 실재 없이 상대 코트를 휘저은 웨스트브룩은 4쿼터 경기 종료 4분 15초를

남기고 어시스트에 성공하며 NBA 역사상 누구도 밟아보지 못했던 한 시즌 42번째 트리플더블 고지를 점령했다.

웨스트브룩은 경기 막판 103-105로 뒤진 상황에서 3점슛 라인에서 한 참 떨어진 곳에서 극적인 역전 버저비터 3점포를 꽂아 넣으며 대기록과 함께 승리를 자축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케빈 듀란트의 이적으로 팀의 플로어 리더가 된 웨스트브룩은 시즌 두 번째 경기에서 첫 트리플더블을 작성한 뒤 시즌 내내 트리플더블 행진을 이었다.

올 시즌 국내 프로농구 KBL에서는 단 4차례 밖에 나오지 않은 트리플더블을 2경기 당 1개꼴로 해냈다.

팀의 80경기 전 경기에 빠짐없이 출전하며 세운 대기록이다.

로버트슨의 시즌 최다 트리플더블과 시즌 평균 트리플더블은 윌트 체임벌린의 한 경기 100득점, 55리바운드, 한 시즌 평균 50.4점 등과 함께 NBA 역사상 대표적인 불멸의 기록으로 꼽혔다.

웨스트브룩은 이러한 대기록을 두 개나 한꺼번에 세우며 시즌 MVP레이스에서 우위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웨스트브룩의 활약 속에 오를라호마시티는 서부 컨퍼런스 6위를 확정했다.

또 다른 트리플더블 제조기 제임스 하든이 있는 3위 휴스턴 로케츠와 플레이오프 1라운드 맞대결을 펼친다.



웨스트브룩은 10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펍시 센터에서 열린 2016~2017시즌 NBA 정규리그 덴버 너게츠와 원정 경기에서 50점 16리바운드 10어시스트를 기록했다.

## 익산고, 춘계 전국검도대회 단체전 3위

익산고등학교(교장 임홍락)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경남 거창군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59회 춘계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40개 학교 4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치열한 열전이 펼쳐진 가운데 남자 단체전 3위에 입상하였다.

익산고등학교는 일본 전지훈련과 동계훈련을 통해 시즌을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하는 각오로 출전하여 1회전부터 전란 장승고를 맞아 6:0 대승을 거두며 신뜻하게 출발하였다.

과죽지세의 기세로 준결승에 올랐지만 경기 과전고를 맞아 아쉽게 1:4로 패하며 3위에 올랐다.

익산고 김대현 감독은 "익산학원의 지승룡 이사장님과 임홍락 교장선생님의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며 "첫 단추를 잘 끼운데 만족하지 않고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 전북출신 쇼트트랙 김아람 평창올림픽 출전 확정

전북출신의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아람 선수(한국체육대학교 4학년)가 치열한 국가대표 선발전을 뚫어내고 평창올림픽 최종 선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아람 선수는 지난 9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장에서 열린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선발전에서 출전한 최민성(성남시청)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평창행행을 확정했다.

전주제일고등학교 3학년 시절 2014소치동계올림픽에 출전하여 여자 계주 3,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김아람 선수는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인 심석희 선수와 함께 2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으며, 2개 대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게 된다.

김아람 선수는 "쇼트트랙 대표 선수 중 최고참으로써 준비를 철저히 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성료'

## 케냐 엘리샤 킷쳐 처 로티치, 2시간 13분 57초로 1위

2017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지난 9일 군산시 일원에서 1만2천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 역시 선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자원봉사자, 시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최적화된 코스관리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 등 행사현장에 걸쳐 완벽하고 깔끔한 진행으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제의 장(場)이 되었다는 평가다.

특히 대회 당일엔 최적의 온도와 화사한 봄꽃이 달리는 선수들에게 최상의 코스 컨디션을 제공해 주며 성공적인 대회를 이끌어내는 데 큰 힘을 실어 주었다.

이번 대회에서 페이스메이커로 출전한 케냐의 엘리샤 킷쳐 처 로티치가 2시간13분57초의 기록으로 엘리트 남자부문의 첫

레이프를 끊었으며 이어 닷셋세 아셋파즈웨데(에티오피아)가 2시간24분10초로 2위를, 도미니 케모리 체론지스(케냐)가 2시간24분24초로 3위를 기록했다.

엘리트 여자부문에선 비아트스 문크자야 선수(몽골)가 2시간32분59초로 1위를 차지하고 켈라네 불불라 센베데 선수(에티오피아)가 2시간35분01초로 2위, 램비 체로 노코에지(케냐) 선수는 2시간38분47초로 3위에 올랐다.

국내 선수 중에는 남자부 김효수 선수(영동군청)가 2시간28분17초, 여자부에선 노유연 선수(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2시간43분36초로 각각 남녀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마스터스 청년부에서 김창원 씨가 2시간35분46초, 장년부에서는 김형락 씨가 2시간44분27초로 1위에 올랐다.



하프, 10km, 5km 코스의 마라톤에 참여한 1만여명의 동호인들과 가족단위 참가자들은 경쟁보다 마라톤 자체를 즐기는 축제분위기를 연출하며 마라톤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교통통행으로 인한 불편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시민의식

으로 질서를 유지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대회에 참가하는 엘리트 초정선수들과 마라톤 동호인들 모두가 군산의 아름다운 정취를 만끽하며 레이스를 펼치고 완주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최고의 대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관근기자

/김민근기자

## 넥센 김하성, 20홀런-20도루 기념 시상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는 오늘 오후 6시30분 고척 스카이 돔에서 펼쳐지는 kt 위즈와의 경기에 앞서 지난 시즌 김하성이 달성한 20홀런-20도루 기념 시상식을 실시한다.

김하성은 지난해 9월20일 광주 KIA전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6회초 상대투수 김진우를 상대로 좌월 솔로포를 기록했다. 프로야구 44번째 20홀런-20도루를 달성했다.

넥센은 김하성이 20홀런-20도루를 달성한 이후 정규시즌 홈경기가 편성되지 않아 올 시즌에 기념 시상식을 실시한다.

이날 고형욱 단장이 김하성에게 20홀런-20도루 달성 기념 상패와 상금 2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하성의 20홀런-20도루는 2008시즌 덕 클락 2012년 강정호 박병호에 이어 팀 통산 4번째 기록이며, 유격수로는 1996, 1997시즌 해태 이종범, 2012시즌 강정호에 이어 역대 3번째다.

/김민근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